

'재기'가 필요한 재기중소기업개발원



김승호의
시선

경남 통영 한산면 죽도에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다. 죽도연수원으로 불린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곳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폐업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재도전 캠프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재도전 힐링캠프', '소상공인 재도전캠프' 등의 과정을 거쳐간 이들은 최근까지 34기에 걸쳐 500명이 훌쩍 넘는다. 50명 가량의 주민이 살고 있는 죽도는 재도전의 성지가 됐다.

죽도연수원은 한 기업인 개인의 원만소로 시작했다. 이 기업인은 죽도의 폐교를 사들여 연수원으로 탈바꿈시켰다. 무료 캠프에 참가할 이들과 강연자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15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교육 과정도 독특하다. 참석자들은 캠프 기간 내내 연수원 뒷편의 야산에 있는 텐트에서 생활한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체조를 하고 100배 절과 명상, 걷기 등을 반복한다. 하루 세끼 중 저녁은 배고픔

을 체험하기 위해 최소한의 먹거리만 제공한다. 수료 직전에는 맨발로 뜨거운 불위를 걷는 경험도 한다. 과정 중엔 임종 체험도 있다. 술과 담배, 커피, 전화기 사용은 금물이다.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며 만든 과정들이다.

그런데 죽도연수원이 점점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전후해 3년 가량 문을 닫았다 다시 연 이후 캠프 참가자들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재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5회차 과정은 정원 25명 중 절반 밖에 인원을 채우질 못했다. 그것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의 도움을 받은 결과다.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뤘던 죽도였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민간기관 중 처음으로 2011년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으로부터 공익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기도 했다. 중기청은 연수원이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캠프에 강연료를 일부 지원했었다.

중기부는 또 재기 관련 정책을 위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과장급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전부였다. 이후 중기부는 '재도전' 관련 조직을 없앴다. 지금은 일부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진흥원이 하고 있을 뿐이다.

재도전 컨트롤타워도 없는 현실에서 재도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리는 만무하다. 현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일부에 '윈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소상공인에 국한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재도전응원본부'를 꾸린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이벤트였다.

모든 중소기업 정책이 창업에 집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 사이에 재도전이 있다. '모두의 창업'은 결국 '모두의 재기'와도 같다. 다산다사형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선 더욱 그렇다.

혹자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교육 방식을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택은 자유다.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진심어린 관심을 바란다.

/bada@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계산



이지수첩
유혜온
(산업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사업(CPSP)은 지금 시점에서 수주 가능성만큼이나 계약 조건과 국익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업이다. 최종 결론이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독일의 기류 변화다. 한국보다 앞서 이 사업에 공을 들여 온 독일은 최근 입찰 의향 단계에서부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핵심 조건 중 하나였던 폭스바겐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점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캐나다가 폭스바겐 공장 건설을 요구

했고, 이런 흐름이 한국에 대한 현대기아차 공장 설립 등 추가 요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작 폭스바겐이 선을 그은 것은 그만큼 캐나다 측 요구 수준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 기술 이전과 패키지형 인프라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자동차·항공기 MRO 공장, 수소에너지 시설까지 맞춰주는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잠수함 관련 기술의 전면 이전 요구는 국가 전략자산 보호 차원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술 이전은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더구나 이전된 기술이 제3국으로 무단 이전되거나 재판매로 이어질 가능성

까지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각서와 협약서를 써도 한계는 분명하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면, 기술 이전의 범위와 수준, 통제 장치와 안전장치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기업 부담은 가볍지 않다. 정부의 두려움 속에 사업을 따냈더라도 훗날 손실이 현실화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결국 기업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가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은 '수주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단계다. 계산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dhaledhale@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 (음 3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하는 일마다 여의 하니 천금을 얻을 것입니다. 60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심이 좋습니다. 72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84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49년생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61년생 건강운이 흥합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세요. 73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5년생 주택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이吉日입니다.



50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62년생 귀하를 도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74년생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86년생 남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세요.



51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63년생 남의 재물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재물이 쌓입니다. 75년생 소원을 풀 수 있습니다. 87년생 시험이나 취직에 합격운이 있습니다.



52년생 남쪽은 좋지 않으니 여행지 선택을 잘하세요.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6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8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53년생 근신하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9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4년생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세요. 66년생 저녁식사에 음식을 주의하세요. 78년생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득남할 것입니다. 90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55년생 뒤로 재빠르게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7년생 과속하면 큰 불행을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79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91년생 상처가 낫을 수 있습니다.



56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8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80년생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92년생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57년생 대체로 원만합니다. 69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81년생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93년생 안에서 찾으려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58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0년생 기다릴 줄 알아야 길이 열립니다. 82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94년생 귀인의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59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7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83년생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59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7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83년생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나를 위한 요리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결승전은 많은 이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시청자의 마음을 건드린 것은 결승전의 주제였다. '오직 자기를 위한 요리'를 만드는 것. 우승을 차지한 요리사는 뜻밖의 고백을 했다. 평생 수많은 손님을 위해 요리해 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요리사와 비슷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심하다.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 필자는 사주를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해 보는 것이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사주가 개인의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기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오래된 지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주가 삶의 흐름을 돌아보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달의 목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사주를 살펴보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만든다.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 왔는지, 어떤 시기에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차분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삶은 선택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니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6	7 3		
		8	5		
8	1				2
4 6					
2					6
					3 9
5			3	2	
	9	1			
6 4		7 2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프렌즈 출제본입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8 6	6 2 4	1 7 9
4 9 7	8 1 5	6 2 8
1 2 6	8 9 7	8 4 5
6 8 2	7 4 9	5 1 8
9 7 4	1 5 8	6 2 7
8 5 1	2 6 8	4 9 7
7 6 9	5 8 1	7 8 4
4 1 9	4 8 2	9 8 6
8 4 8	9 7 6	2 9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프렌즈 출제본입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9	8 6 9	4 2 1
2 1 9	9 4 8	8 6 7
4 6 8	2 7 1	9 5 8
7 8 4	6 8 9	1 9 2
1 5 2	9 8 4	8 7 6
6 9 8	1 2 7	9 8 4
8 2 1	4 9 6	7 8 9
9 8 6	7 1 8	2 4 9
5 4 7	8 9 2	6 1 8

metro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00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0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